

31) 진행된 악성 부비동 종양의 병용치료법

가톨릭대학 의학부 이비인후과학교실

이 인자*. 김 민식 . 조 승호 . 서 병도

부비동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자각증상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 병변이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행된 부비동암의 치료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의 병용치료법이 종래부터 시도되어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광범위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후유증이 크고 치료결과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저자들은 진행된 부비동암 (T4) 환자 10명에서 유도화학요법 (Cisplatin, 5-FU) 후 수술 (상악절제술 4예, 두개안면절제술 1예)과 방사선 치료 (약 7000 cGy)를 받은 5명과 유도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만 받은 5명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술을 포함한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 5명중 3명은 평균추적기간 28개월 동안 재발의 증거가 없었으나 2명에서 국소재발이 있었고 이들은 국소절제술 및 방사선치료 후 현재 1년이상 무병상태이다.
2. 수술을 포함한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 5명중 4명에서 초진시 안와내 종양 재발은 없었으나 수술시 안와를 보존하였고 그후 안와부위의 국소 재발은 없었다.
3. 유도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만을 받은 5명 모두 6개월 이내에 국소재발하였다.
4. 진행된 악성 부비동암은 수술을 포함한 병용요법으로 좀 더 좋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